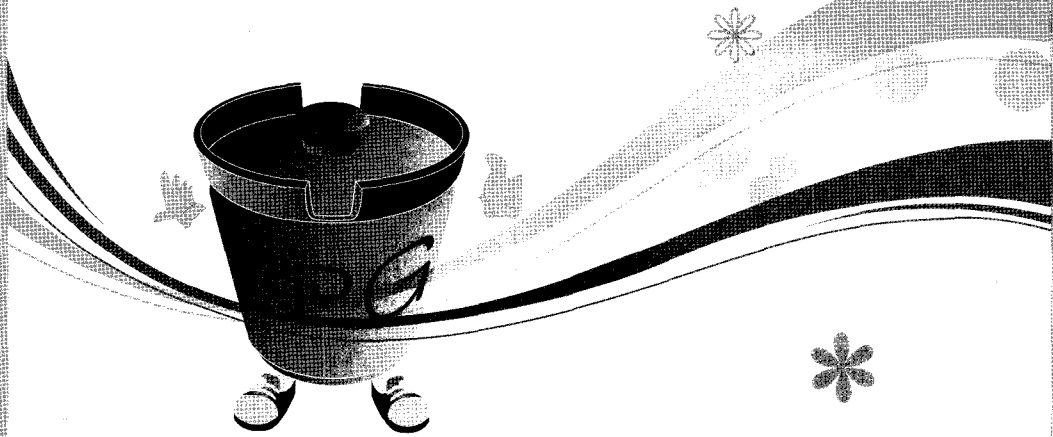


소형용기 직판 시범사업 추진으로 LPG 산업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환 계기 마련

- 시범사업자 선정 등 시범사업 본격 실시 -

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



- 지식경제부는 『LPG 소형용기 직판제도』의 성공적인 도입 및 정착을 위해 1년간 시범사업 ('09.12말~'10.12말)을 실시키로 하고,
 - 지난해 12월말 시범사업 시행계획 및 관련운용규정을 공포하고, 사업자 공모 및 시범사업 위원회 심의('10.2.11)를 거쳐, 올해 2월12일에는 총 18명의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.
 - 선정된 시범사업자는 전국 57개 신청 사업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확정했다.
 - ※ 시범사업자는 총전 및 판매사업자 각각 9명 동수로서 제주와 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·도에 1명 이상 분포
 - ※ 『소형용기 직판제도』는 5kg 이하 소형용기를 소비자가 직접 구매·운반하여 사용토록 함으로써 현행의 “공급자 위주 공급체계”에서 “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”로 개선하는 제도
- 현재 현장적용시험 및 안전성 테스트를 완료한 소형용기용 제품은 올해 2월말 보급을 목

표로 관련 제조사에서는 양산체계에 착수하고 있으며, 늦어도 '10년3월 초부터는 소비자 직접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.

- 그간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('09.7.2~' 10.1.30)하고,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제조업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(총 7회)하여 제품개발 등 시범사업을 준비해 왔다.

· 개발된 제품은 소비자의 편리성 및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원터치방식의 연결 제품이며

- 특히, 이들 제품은 허가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 등 후속절차를 완료한 시범사업자부터 우선적으로 투입해 나갈 계획이며, 지난 2월17일에는 관할 허가관청에 신속한 후속조치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다.

※ 관련 운용규정에서 지정 후 30일 이내에 충전사업자는(자동차 충전사업자는 60일 이내) 허가를, 판매사업자는 신고를 각각 이행토록 규정

○ 향후 원터치식 연결제품 투입시 제품 사용설명서 제공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다양한 소비자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성을 제고시켜 나가며,

○ 시범사업 실시과정에서 분기별 현장 실태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·개선한 후, '11년 상반기 액화가스법령 등 개정을 통한 제도의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.

- 소비자 및 시범사업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(분기1회) 및 종합평가('10. 12월) 등을 통하여 시범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고, 개선방안을 도출하고

- '11년 법제화시 마트 등 신규 유통점에 대한 허가제 등을 검토하고, 관련 입법을 추진하여 '11년 6월 전면시행 예정이다.

○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이를 통한 법제화는 서민연료인 LPG의 가격인하를 촉진시켜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며,

※ 소비자가 직접 구매시 배달비용 절감에 따라 5kg 용기의 경우 약 825원('10.1월 판매가격 9,040원의 9.1%)의 인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
- 야외·레저용 등 다양한 제품개발 및 용기, 압력조정기 등 관련 연계제품의 기술발전을 촉진시켜 LP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,

- 장기적으로 현행의 LP가스 수급체계를 “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소비자 스스로 책임 지는” 선진국형 자율안전관리 체계로 전환시켜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를 대폭 감소시



키는 효과도 기대된다.

※ 최근 5년간(05년~09년)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매년 평균 45건 ~ 47건 수준으로 매우 높은 편임.

※ 동 제도는 영국·프랑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정착·시행되고 있으며, 일본의 경우도 '05년도 도입이후 현재까지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

【붙임 1】 시범사업자 선정결과

지역	선정결과			신청사업자		
	계	총전사업자	판매사업자	계	총전사업자	판매사업자
계	18	9	9	57	35	22
서울	1		1	1	0	1
부산	1	1		3	3	0
대구	1		1	2	0	2
인천	1	1		1	1	0
광주	1	1		2	1	1
대전	1	1		1	1	0
울산	-			2	2	0
경기	3	1	2	11	5	6
강원	1	1		4	4	0
충북	1	1		6	5	1
충남	1		1	5	2	3
전북	2	1	1	2	1	1
전남	2		2	7	4	3
경북	1	1		3	3	0
경남	1		1	5	1	4
제주	-			2	2	
제주	-			2	2	

【붙임 2】 지정 시범사업자 및 관할 지자체 명단

시도	시군구	사업종류	업소명	담당과	담당자	전화번호
서울	양천구	판매	효성가스	지역경제과	홍기환	02-2620-3251
부산	동구	충전	한국가스(범일)	경제진흥과	윤용춘	051-440-4521
대구	수성구	판매	경북가스	산업환경팀	곽현섭	053-666-2646
인천	남구	충전	성림가스	경제지원과	모미진	032-880-4389
광주	남구	충전	광주충전소	녹색성장기획단	박세라	062-650-7356
대전	동구	충전	중도가스(대전)	경제진흥과	박세훈	042-250-1352
경기	여주군	충전	여주충전소	지역경제과	이정일	031-887-2272
	시흥시	판매	시흥엘피지	지역경제과	노옥경	031-310-2277
	안양시	판매	백조에너지	녹색정책과	이윤석	031-389-2947
강원	춘천시	충전	중앙에너지산업	경제과	김동한	033-250-3091
충북	청주시	충전	청주LPG	경제과	정 원	043-200-2354
충남	당진군	판매	동부종합가스	지역경제과	박경서	041-350-3492
전북	익산시	판매	국제에너지	지역경제과	유재호	063-859-5217
		충전	신동양충전소			
전남	고흥군	판매	고흥가스	투자정책과	최동구	061-830-6611
	광양시	판매	고려가스	지역경제과	강희원	061-797-2805
경북	경산시	충전	SK가스(경산)	경제노동팀	김한섭	053-810-6248
경남	진주시	판매	한일가스	지역경제과	이문자	055-749-5254

[붙임 3] 소형용기 직판 관련 외국의 사례

1. 영국

가. LP가스(용기) 유통체계

- 생산(1차기지) → 배송센터 → 용기충전소 → 판매점(BP등 사업자의 딜러) 또는 소매업소(유통점) → 소비자 순
- ※ LPG(용기) 공급물량은 약 120만톤(우리나라의 1/7수준)으로 난방 및 상업용이 80%를, 레저용은 약 20%를 차지

나. 소형용기(18kg미만) 관련 현황

1) 용기형태 및 밸브의 종류의 다양성

- 용기 형태
 - 실내용 히터(7kg, 13kg : 부탄), 난방용(6kg, 11kg : 프로판), 야외용(5kg, 10kg, 컴포지트 용기)
 - * 프로판은 실외에서만 사용 가능, 부탄은 실내/실외 모두 사용 가능

- 밸브의 종류 - 프로판 : 18kg이상은 Handwill(국내방식), 18kg미만은 Clip 방식(원터치), 부탄 : Clip 방식(원터치)

2) 소형용기 구매형태 및 사고시 책임

-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구매하기도 하나, 주로 소매업소(약 2만개)에서 직접 구매
- * 소매업소(유통점)는 주로 소형마트, 주유소, 캠핑가든 등
- 사고발생시, 용기자체 문제와 소비자 과실에 의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속

3) 판매사업 허가 및 용기관리 체계

- 판매사업은 지방정부의 Licence를 받으면 가능(총 보유용량 330kg 이상의 경우는 요건이 매우 엄격)
- 판매사업자는 실외에 시건장치하여 보관토록 의무화, 특히 소매점은 별도 장부를 두고, 소형용기 구매자의 이력을 관리
- 안전관리자 선임은 충전소 경우 법적 의무이나, 유통점 등은 제한없음.

4) 용기의 재검사 관련사항

- 재검사는 제3의 공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며, 그 주기는 10년

○ 법적 사용연한은 없으나, 30년 이상의 용기는 자체 폐기

5) 기타 용기 소유권 및 사후관리책임 등

○ BP 등 사업자는 용기의 투자 및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며, 용기의 소유권도 보유

○ 판매가격은 최초 구입시 일정액을 예치, 그 이후에는 가스가격만을 지불하고 새로운 용기로 교체 구입

* 소비자 차량 적재, 운반시 이를 제한하는 별도의 운반기준은 없음

2. 프랑스

가. LP가스 유통체계

○ 전반적인 유통체계는 영국의 경우와 대동소이

- 유통에 있어 별다른 제약없이 다양한 채널로 공급되고 있으며 유통중인 소형용기는 용도 및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

* 대도시는 대부분 PNG를 사용하고 PNG가 보급되지 않는 외곽 지역에서 LPG사용

나. 소형용기 유통현황

○ 주유소가 접근성 면에서 영국보다 우수하여 소형용기 유통의 중심이 되고 있으며, 대형 할인매장에서 취급하는 소형용기는 순수레저용으로 크기 및 규모가 크지 않음.

- 다만, 영국과는 달리 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책정된 규모의 보증금(6kg 또는 13kg 용기 9유로)을 받고, 용기를 공급하고 있으며, LPG의 자체의 가격은 단일 가격으로 거래

* 대형 할인매장(까르푸)에서는 200g ~ 2kg까지의 소형용기를 주로 취급

다. 기타 사항

○ 용기 소유와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자이고, 소비자 과실에 의한 사고는 사용자 책임이며, 용기 재검사기간은 10년

3. 시사점

□ 소형용기 도입 및 용기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정부 정책방향을 모색하고, LP가스 유통체계 개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활용 필요